

“국군장병 금연 위해 초등학생들 나섰다”

고사리 손으로 쓴 금연 위문편지 국군장병들에게 전달돼 화제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금연위문편지가 전달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지난 6월 18일 5군수지원 사령부 186 공병대대를 시작으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금연 위문편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쓴 군 장병들을 위한 금연위문 편지를 받아 본 장병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초등학생 금연글짓기 공모’는 14년째 실시해 온 행사로 국군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하여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금연위문편지를 함께 접수 받았다. 편지를 전달받은 장병들은 군 생활에서 처음 받아본 위문편지라며 신기해하면서도 매우 즐거워했고 어린 학생들이 금연 해줄 것을 원하는 만큼 기대에 부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군장병의 건강을 기원하는 추억의 “금연 위문 편지” 부활

“충성! 나라를 지키는 고마운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하는 어린
동생들의 편지글이다.

비록, 우표가 붙은 편지는 아니었지만,
커서, 군인이 되서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어린이
군인 제복이 너무 멋있어서 군인아저씨
와 결혼하고 싶다는 어린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내려간 한 줄 한 줄은 국군장병들의
얼굴에 웃음을 머뭇게 한다.

특히 “담배 때문에 국군아저씨가 아프면, 나라를 누
가 지켜주나요?”, “국군아저씨의 건강은 나라의 건강
이에요”라며 어린 초등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담긴 문구
는 흡연하는 국군장병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이번 국군 장병에게 금연위문편지 7,320편을 전달하는 행사는
군대를 “담배를 배우는 곳에서 담배를 끊는 곳”으로 변
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전협에서는 전국 군부대에 방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
관련 검사와 지속적인 금연상담으로 군 장병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연위문편지”라는 아이টে을 내놓게 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위문편지는 '70~'80년대에는 군복무중인 군
인에게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였다. 지금
군 장병들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위문편지라 마냥 신기하고 재밌
겠지만, 군 장병들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을 걱정하는 어린 동생
들의 글에서 다시 한번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라며
머리를 긁적이는 한 군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고사리같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쓴 금연위문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금연위문편지를 받아본 장병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각 부대 장병들에게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